“수개극행 덕목 삼아 종무행정 펼치겠다”

〈守改克行〉

1월 16일, 총지종 제 21대 통리원장 록경정사 취임

“승단 · 교도 마음 모아 한 걸음”

대승적 불교 중단 본분 강조

지성 종령 “무한 발전” 염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21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한 록경 정사는 취임선서에서 “지키고, 고치고, 실천하겠다”며 ‘수개극행’을 다짐했다.

불교총지종 제21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한 록경 정사가 중생과 함께하는 일상의 삶과 사회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수개극행’을 덕목으로 삼아 종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서원했다.

불교총지종은 1월 16일 총본산 서울 총지사에서 ‘제21대 통리원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제21대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취임선서를 통해 △원정 대성사 가르침에 따라 총지종의 종지와 종풍을 굳게 지키고 종단의 발전과 중생 교화를 위해 항상 서원하고 정진 할 것 △근본에 입각한 혁신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종단의 화평을 도모하며 현세정화와 복지 증진을 실현해 법신부처님의 대원을 세상에 널리 필칠 것 △통리원장 직무를 맡아 청정한 계율과 불심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성실히 임할 것을 비로자나부처님 전에 곧게 서약했다.

록경 정사는 취임사에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첫발을 기억하고 교화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수개극행(守改克行)’을 강조한 록경 정사는 “창종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100년의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현재, 제21대 통리원은 종단 반세기라는 역사의 반석 위에 교화발전이라는 주춧돌을 놓는다는 각오로 출발하고자 한다”면서 “‘지키고 고치며 극복하고 실천한다’는 수개극행을 덕목으로 삼아 종무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록경 정사는 “선대 스승들과 역대 전임자들의 뜻과 기본 정신에 충실해 추진 중인 업무는 더욱 견고하게 유지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업은 가르침과 교화발전에 부합하는지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면 승단과 교도들과 마음을 모아 이겨내며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종무행정 개선을 통해 시대에 적절히 대응해 나아갈 것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불교 종단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중생과 함께하는 일상의 삶 속으로, 사회 속으로 더욱 스며들 수 있도록 ‘수개극행’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취임식에 앞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서 불교총지종 종령 지성 대종사는 취임식이 종단의 무한한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발원했다.

법회에서는 퇴임하는 기로스승에 대한 사령장과 기로가사 수여식도 열렸다. 지성 대종사는 정원심 전수와 우가해 전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승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중생교화에 힘쓰고, 상구보리하화중생을 실천해 총지종 발전에 공헌했다”고 치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5일 입적한 기로스승 법례월 전수의 유지에 따라, 유족 대표 안정혜 안정혜 보살교도가 불교총지종 발전기금 5000만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발의 의원 만날 것”

특별법저지상임위 2차 회의

“의원 답변 따라 면담하겠다”

종편특위 서울·충청 방문 준비

가톨릭 국제 행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철회·보류하지 않을 경우, 불교계에서 의원 직접 면담을 추진한다.

‘헌법정신 위배하는 천주교 2027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주경 스님)’ 산하 상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이하 저지상임위)는 1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10일 진행된 유현규 김병기 의원 보좌관과 저지상임위 실무팀의 면담 내용이 보고됐다. 실무팀이 전한 유 보좌관의 설명에 따르면 특별법은 세계청년대회 개최에 앞서 각 기관들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실무팀은 “타종교계에서도 요청한다면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답변에 법안 철회를 바라는 불교계의 입장을 다시 전하고, 1월 27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저지상임위 위원스님들은 1월 27일까지 특별법 철회·보류 의사가 없을 시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갈 것을 결정했다. 위원스님들은 “대표 발의한 김병기·김상훈 국회의원 등과 직접 면담해 특별법의 문제점을 짚은 뒤 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자”고 다짐하며 면담 일자를 2월 초반으로 지정했다. 또한 대표발의 의원 면담 결과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특별법 반대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같은 날 개최된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이하 종편특위) 제2차 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이 논의됐다. 위원스님들은 세계청년대회 관련 지자체 현황을 공유하고 특위 차원에서 진행할 활동에 대해 결정했다. 위원장 선광 스님은 “우선 서울시와 충청도 지자체에 위원스님들이 방문해 항의하자”면서 실무진에 검토를 요청했다.

종편특위에서 공유된 세계청년대회, 가톨릭 성역화 관련 지자체는 △서울시 △용인시 △인천시 △파주시 △경기도 △충청권역 등이다.

김가령 기자

“비구니스님 실질적 복지 위해 노력을”

비구니회, 2025년 워크숍

전국비구니회원葬 등 논의



전국비구니회는 1월 12~14일 경주 황룡원에서 워크숍을 갖고 2025년 사업을 논의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지난해 사업결과를 보고하고 2025년 새해의 발전 방향과 신규 사업을 논의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2025년 상반기 소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총무부, 기획실, 교육부, 문화포교부, 복지부, 국제사회부, 재무부 등 주요 부서가 진행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방향 및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발표는 주요 부서 뿐 아니라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사찰음식연구소, 차문화연구소, 불교영적돌봄연구소 부설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계획설명도 이어졌다.

2024년 사업 결과 보고에서 전국비구니회는 ‘주어사지 종합안내판 수정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어사지 종합안내판 수정 설치’는 유적지 안내판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직접적으로 관공서에 건의하고 대응을 확인한 사례다. 전국비구니회는 올해도 여주시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우리 힘으로 찾은 주어사지 역사 속 걷기 명상’ 등 행사를 추진해 주어사지에 대한 역사와 의미를 알리고 종교 편향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각 부서별 주요 사업인 홍보, 무료 행정·법률 상담,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지원,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탄소비움 자비 채움 환경대축제 ‘그린붓다데이’ 환경콘서트와 환경 캠페인, 장학 사업 및 승려인증연수교육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전국비구니회 복지부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전국비구니회원장’을 준비한다. 전국비구니회원장은 비구니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례를 담당하고 도제 혹은 연고가 없는 비구니스님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독거비구니스님 돌봄 지원 사업’도 마련된다. 안정적인 복지 환경과 정서 돌봄을 위한 사업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다가가는 복지환경 조성”을 강조한 회장 광용 스님의 공약을 구체화 했다. ‘독거비구니스님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 전국비구니회는 정서돌봄 필요 현황을 파악하고 신청서 등을 제작해 사업 홍보 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회장 광용 스님은 앞서 열린 입재식에서 먼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광용 스님은 “25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 해온 사업을 바탕으로 유익하고 공익적이고, 비구니스님의 권위와 위상을 위해 새롭게 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며 “의료와 장례 의례절차 등 실질적인 복지와 어른스님들을 위한 보살핌 등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고민하고 계획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주 황룡원=하성미 기자

조계종, 신우철 완도군수에 감사패

진우 스님, 성보 발굴 · 보존 이바지 치하



진우 스님은 1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완도군 불교문화유산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치하했다.〈사진〉

신 군수는 돈독한 신심과 원력으로 성보 발굴 및 보존에 협조한 것에 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도 신흥사, 학서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 최근에는 완도 신흥사 목조약사여래좌상을 국가 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지원했다. 또한 완도 장좌리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완도군의 불교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완도를 “불교와 인연이 깊은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신라의 무장 장보고와의 인연을 언급했다. 진우 스님은 “완도의 본래 이름은 원도로,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한 녹야원에서 따와 장보고 대사가 붙인 이름”이라며 “장보고는 중국 적산 법화사, 제주 법화사, 완도 법화사를 건립하며 우리나라에 선불교를 들여왔고 이는 구산선문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도 불교의 역사적 배경을 더 잘 살펴 성보의 발굴 및 보존에 힘쓴다면 관광산업, 특히 불자들의 순례코스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신 군수도 “불교문화유산 보존과 저변 확대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임은호 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5학년도 학점 은행제 신(편)입생 모집안내

(교육부 학위 인정 교육기관)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3매

■전형일정 | 2025년 1월 1일 ~ 2월 28일

■개 강 | 2025년 3월 첫째주 3월 4일 (화요일)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회 장 조현성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김 향 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